

제79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2월 11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2월 11일 하오 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 김남진, 박두순, 김성균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소방서장 박찬모 경감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서울 출장 결과보고(의장 김삼성, 김상대 의원)

나. 부의안건

차남수 병원 화재 발생의 건

8. 토의사항

※ 서울 출장 결과보고

◇김 상 대 의원 보고

- (1) 정병조씨 관계 소송사건은 서울 검찰청 검사장과 당 목포법원으로 이관 하도록 확약을 보았습니다.
- (2) 의미도입문제로 농림부 차관과 외자청을 방문하였던 바 당 목포항기착의 악조건으로 첫째, 감량이 많다는 것과 둘째, 물양장이 나쁘다는 것 셋째, 임금이 타항구에 비하여 고가이라는 등으로 상당히 악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엿보여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들어 상당히 역설한바 있었으나 차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 (3) 체신부장관을 방문하여 공전식 전화설치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우체국 본관 건축 촉진책을 진정하였더니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 안 되었으나 추경에 노력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 (4)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하여 전기국장을 심방 요청 하였던바 호남지방에 설치할 것만은 확실시 된 것 같으나, 차후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 (5) 공회당 건립문제에 대하여 내무부 임 사무관을 만났는데 금년도 예산에 4.000만환을 계상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6) 그리고 전당포 문제와 공설시장 문제도 확약을 받았습니다.
- (7) 끝으로 상수도 공사비 보조로 기천만 환이 더 배시될 것 같았습니다.

◇김 삼 성 의장

- 상수도 공사에 대한 보충보고가 있었음

※ 차남수 병원 화재 발생의 건

◇강 영 락 의원

- 본 건 논의하기 전에 소방서장과 의용 소방대장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청할 것을 긴급동의 재청...삼청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박찬모 소방서장 참석

◇김 창 희 의원

- 망초대를 건설한지 1년이 경과된 오늘날 그 기능을 발휘 못하였다고 보아 질적에 금반의 화재사건 당시 망초 대로부터의 연락이 어느 때 받았으며 서원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어느 때였던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소방 호스차가 화재발생 15분 후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소화전을 찾지 못하여 또 10여분 지연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경위 및 탱크차를 출동 안 시킨 이유를 묻는다.

◇강 영 락 의원

- (1) 저수 탱크의 위치 미확인 이유는 무엇인가
- (2) 황금탕 옆의 소화전을 이용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3) 시 당국에서는 어느 때 연락을 받았던가
- (4) 탱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스차에 뒤떨어져 온 이유는 무엇인가
- (5) 소방호스의 미보소유는 무엇인가

결론으로 현금 시민의 소리는 성능이 우수한 미식 탱크차가 좀더 빨리 출동 하였더라면 2층의 2칸도 안 타지고 소화되었으리라는 말이있다.

이날은 모든 악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의 행동이 민활치 못하여 이러한 불행을 입게 되었으며 우리 시민이 1년에 4백여만환의 소방비를 부담하여 가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일반시민들은 금반의 화재를 우리 의회에서 소방비 예산을 위요하고 옥신 각신 하다가 늦게 통과시킴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 못한 것 같이 의아를 품고 있는 층도 있는 것 같으나 오해 없기를 바라며

- (1) 무보수로써 자기 희생을 무릅쓰며 근로에 당하는 의용 소방대원에 사의를 표한다.
- (2) 화재 당일 유달산 등산객이 화재임을 발견하고 현장에 도보로써 갔었으나 그때까지 소방차는 안왔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 (3) 싸이렌 취명을 지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 (4) 소방서 당국의 피해액 발표는 850만 환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본인

의 말에 의하면 2,000여만 환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상치된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 양 순 의원

- 시내의 소화전이 몇 개나 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정 응 표 의원

- 금반의 예산 통과 시 150만 환의 소방 사령차를 구입하도록 통과시켰더라면 이렇게 그 병원이 전소 안되었겠는가

◇김 경 인 의원

- 망초대에는 평소 몇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교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2) 저수탱크의 수용능력을 말하여 주기 바라며 시내 큰 건물의 저수량을 조사하여 본 일이 있었는가

(3) 차남수 병원 지하실 저수량을 조사하여 본 일이 있었는가

◇박 찬 모 소방서장 답변

(1) 망초대의 근무는 24시간 종일하고 있는 것이나 화재당일은 안개가 가득히 끼어서 화재의 식별에 곤란을 느꼈던 것이며 또 화재현장은 황금탕과 기관구 등이 접근한 곳 이여서 화재발생 여부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2) 우체국을 통하여 화재 연락 통보를 받은 것은 6시 50분 경이였습니다.

(3) 그리고 화재에 있어도 옥내 화재와 옥외 화재는 그 발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금반은 옥내로부터의 화재였던 것입니다.

(4) 그리고 1번차, 2번차가 출동하여 방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도를 한 목일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중에 있습니다.

(5) 화재 현장에 당도하여 수도전을 찾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함은 사실인 것이나 그날은 임시직원들이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나, 이점 평소 부하 직원의 훈련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호스 보수의 미비에 대하여는 고무호스가 아니고 미주산인 관계로 때로는 부조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7) 시내에 소화전은 73개가 있는 것이나, 거개 압력이 약한 관계로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8) 싸이렌 취명 지연 이유를 질문하시나 보통의 화재에는 무보수 대원들을 소집하는 것을 피하고 서원들만으로 임무에 당하라 했었던 것이며 내중에 싸이렌을 취명시킨 점은 작전상 인근의 연소방지를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9) 소방 사령차는 만약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소방세는 4월말에야 징수 될 것으로서 아직 구입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 짝차의 역할도 화재 당시의 연락 등 필요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 피해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단독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 피해자 등 3자 합의하에 결정 짓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1) 지하 저수조의 조사 여부에 대하여는 소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질문하는 것이고 호수 외에 흡수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 상 태 의원

- 소화전을 찾는데 지연된 이유로 임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리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정규직원과 함께 배치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방서장은 도의적인 면에서 행정책임을 질 의사는 없는가.

◇이 정 권 의원

- 박 서장은 전반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예산 심의 도중 소방 사령차 구입필요여부를 질문하였더니 폭언을 하면서 퇴장하였다. 금반의 화재는 그 당시를 상기하여 좋은 대조가 된다.

◇김 경 인 의원

- 화인의 여하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반의 화재는 개인의 막대한 재산을 손실하였으며 금반은 소방서 당국의 민활치 못한 완만한 처사를 하였다 함은 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이정권 의원의 발언과 같이 소방비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사령 짝차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적에 소방서장은 “목포아니면 근무할 곳이 없겠느냐”는 폭언을 하며 퇴장한 것으로 보아 그 직무에 대한 성

실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모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차라리 소방서를 안 믿었더라면 더 적은 피해로서 진화되었으리라는 중대한 발언을 하였다. 전반에 광주에서는 유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화 10분만에 그 곳 소방 당국의 맹열한 활동으로 별 피해 없이 진화되었다고 하니 광주와 목포의 소방서의 차이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김 일 섭 의원

- 박 서장의 답변 중 부하직원의 훈련부족 운운을 말씀하셨으나 저반의 사 열식 등에서는 당 목포서가 그 성적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표창까지 받지 않았는가 평상시에는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다고 하나 유사시에 임하여 훈련부족을 빙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김 창 희 의원

- 소방서장의 임면권은 내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나 어디까지나 소방서장은 지방실정에 능과한 지방인사를 지방민이 추천하여 임면하도록 하여야 되 리라고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협박서장을 당의회의 결의로써 영전토록 할 지방실정에 통달한 서장을 배치토록 관계당국에 진정함이 가할 것 같다.

◇명 남 철 의원

- 소방서는 항상 일조 유사시 대비하여 정신면이 무장과 제반기구 등의 검 토를 완전무결하게 하여두어야 쓸 것이다. 금반의 처사는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이만큼 논의하였으니 소방서장도 느낀 바 있었으리라고 보아지며 차남수 병원 외는 연소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생 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소방서장은 신분상 진퇴문제를 중앙에 건의 안 한 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니 재임시까지라도 성실성 있는 근무를 부탁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김창희 의원 발언에 찬성발언.

◇이 정 권 의원

- 오늘의 의회 소집 목적이 앞으로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 있는데 박 서장의 답변은 지극히 모호한 답변일 것이다. 정응표 의원의 발언과 같이 광주서와 목포서의 월등한 차이 있음을 지적하고 결국 죽도록 일하고도 사회의 비난을 받게되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 흥 렬 의용 소방대장

- 금반의 화재로 말미암아 시민의 불안을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사과와 아울러 현 박 서장은 역대 소방서장에 비교하여 열과 성이 풍부한 인격자라는 요지의 설명이 되었음.

◇김 삼 성 의장

- 폐회 선언. 하오 1시 30분 현재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2월 12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